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허예리* · 정현주**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국제개발협력과 민간자선재단: 역사와 현황
- IV. 연구 설계
- V. 실증분석
- VI. 결론

주제어: 민간자선재단, 개발을 위한 자선,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지속가능발전

|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부는 증가하고 있지만 빈곤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공적개발 원조(ODA)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통적 행위자인 DAC 회원국이 아닌 비정 부 공여행위자인 민간자선재단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재단의 원조 배분 규모는 OECD DAC 회원국의 ODA를 초과하며, 혁신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개발도 상국에 대한 이러한 원조 배분의 패턴은 재단별로 매우 상이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의 수원국 선정 및 원조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국가 행 위자 중심의 공여자의 이익-수원국의 필요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의 개발협력 자원 배분 요인을 ‘국제규범 준수자’, ‘조직성과 추 구자’, ‘파트너십 형성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OECD CRS에 보 고한 40개 민간자선재단을 대상으로 2단계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별 분석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자선재단은 국제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조직성과를 추 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원조를 배분함을 확인하였다. 다 만, 지역별 분석 결과,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 결정요인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국가 중심 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조직(CSOs)과의 협력 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민간자선재단의 역할과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양한 행위 자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실증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국제관계연구』 제30권 제1호(2025년 여름호).

<http://dx.doi.org/10.18031/jip.2025.06.30.1.39>

✦ 이 논문은 제1저자인 허예리의 석사학위 논문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결정요인 연구”(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2025)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건설적인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졸업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서론

민간자선재단(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빈곤, 불평등, 난민, 기후변화, 분쟁 등 글로벌 난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5조 달러에서 4조 달러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공여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대응과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위자와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새로운 행위자 중 민간자선재단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유연한 자금 운용, 신속한 대응,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

이러한 평가는 민간자선재단에 의한 자원 배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자선재단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개발을 위한 자선 활동(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부금, 투자, 배당금, 복권 등 재단 자체의 재원을 활용해 이루어진다.³⁾ 이러한 ‘개발을 위한 자선 활동’은 OECD 개

1) United Nations,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Financing for Development at a Crossroads* (New York: United Nations, 2024), p. 2.

2) Robert Marten and Jan M. Witte, “Transforming Development? The Role of Philanthropic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PPi Research Paper Series*, No. 10 (2008), pp. 14-22; Carol Adelman, “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Reinventing Foreign Aid,”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15, No. 2 (2009), pp. 23-33; Laura Metzger, Peter Nunnenkamp, and Toman Omar Mahmoud, “Is Corporate Aid Targeted to Poor and Deserv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Nestle’s Aid Allocation,” *World Development*, Vol. 38, No. 3 (2010), pp. 228-243; OECD, *Philanthropic Foundatio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Publishing, 2003), pp. 81-88;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Philanthropy and the SDGs: Getting Started*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2019), pp. 20-30.

3) OECD,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 Second Edition: Data for Action, The Development Dimension* (Paris: OECD Publishing, 2021), p. 18.

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에 버금 가거나 그 이상으로 활발하다. 개발을 위한 자선활동을 하는 민간자선재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MGF: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경우, 2010년 약 26억 1,394만 달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최대 약 51억 6,718만 달러를 집행하는 등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41억 4,97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인 OECD DAC 회원국 총 31개국 중 17개국의 연간 ODA 집행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한국의 ODA 지출과 비교했을 때 최소 약 1.7배에서 최대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⁴⁾

또한, BMGF를 포함한 민간자선재단은 개발을 위한 자선 활동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51억 달러(총 약 454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101억 달러(총 약 302억 달러)를 지출한 것에 비해 약 61.5%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민간자선재단의 개발을 위한 자선 활동 집행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6%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9.3%로 증가하며 약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동일한 시기 주요 개발협력 행위자인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자선재단의 개발을 위한 자선 활동의 연평균 증가율은 19.3%였는데,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출 금액의 연평균 증가율 약 2.8%에 비해 6.9배 높은 수준이다.⁵⁾ 이러한 변화는 민간자선재단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간 행위자로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OECD, "DAC1: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taset]," May 2,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FinalDMZ&df\[id\]=DSD_DAC1%40DF_DAC1&df\[ag\]=OECD.DCD.FSD&av=true&pd=%2C&dq=DAC...1140%2B1160..Q.&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FinalDMZ&df[id]=DSD_DAC1%40DF_DAC1&df[ag]=OECD.DCD.FSD&av=true&pd=%2C&dq=DAC...1140%2B1160..Q.&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OECD,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Dataset]," April 12,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cdDisseminateFinalDMZ&df\[id\]=DSD_PPF0%40DF_PPF0&df\[ag\]=OECD.DCD.FSD&dq=9PRIV0..1000._T.D.Q._T..&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cdDisseminateFinalDMZ&df[id]=DSD_PPF0%40DF_PPF0&df[ag]=OECD.DCD.FSD&dq=9PRIV0..1000._T.D.Q._T..&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5) Ibid.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은 지역별, 국가별, 부분별로 매우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 즉, 어떤 민간자선재단은 아프리카에 대부분 자원을 배분하는 반면, 다른 재단은 아시아나 남미에 자원을 배분하고, 보건 분야에 초점을 두는 재단과 그렇지 않은 재단이 있다. 예를 들면, 2022년 현재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과 포드 재단은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 경제적 인프라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주로 아프리카 전역과 서아시아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반면, 포드 재단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블룸버그가족 재단의 경우, 포드 재단과 유사하게 전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함과 동시에 분야별로도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⁶⁾

그렇다면, 왜 유사한 특성이 있는 민간자선재단 간 원조 배분 패턴은 상이한가? 어떠한 요인이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자원 배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OECD DAC 공여국의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다.⁷⁾ 하지만, 정치적·외교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공여국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⁸⁾에서 수원국을 선정하는 요인과 선정된 수원국에 대해 배분

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Paris: OECD Publishing, 2024).

7) Alberto Alesina and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 No.1 (2000), pp. 33-63; Paul Collier and David Dollar,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6, No.8 (2002), pp. 1475-1500; Eric Neumayer, *The Pattern of Aid Giving: The Impact of Good Governance and Development Assistance* (Routledge, 2003b), pp. 18-60; Jean-Claude Berthélemy, "Bilateral Donors' Interest vs. Recipients' Development Motives in Aid Allocation: Do All Donors Behave the Sam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 No. 2 (2006), pp. 179-194; François Bourguignon and Mark Sundberg, "Aid Effectiveness: Opening the Black Box,"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7, No. 2 (2007), pp. 316-321; 이은미·이정철,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조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공여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8), pp. 261-288; 정현주 외, "지역체제 수준에서의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학논총』 제35권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pp. 153-190.

8) Ikenberry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란 인도와 브라질 등 비서구 개발도상국들이 중심되는 그룹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이 이끄는 "글로벌 웨스트(West)"와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스트(East)"와 구분된다. 다만, 이 세 집단은 고정되거나 공식적인 정치적 실체라기보다는 비공식적

하는 원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에 미치는 요인이 공여국이나 다른 개발협력 행위자의 원조 배분에 미치는 요인과 상이한지 혹은 유사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립성, 유연성, 혁신적 접근, 신속한 대응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주목받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과 연계된 요인이 정책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질문과 관련된 선행연구, 특히 원조 배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민간자선재단의 역사적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이들의 자원 배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 변수 측정을 다루고, 제Ⅴ장에서는 통계적 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국제개발협력 연구분야에서 민간부문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민간자선재단,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비롯한 시민사회조직(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민간기업을 모두 ‘민간부문’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한다.⁹⁾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으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분파로 이해될 수 있다. John Ikenberry,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1 (2024), pp. 122-123.

9) Penny Davies,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the Context of Aid Effectiveness: Consultative Findings Document Final Report* (Paris: OECD Publishing, 2011), pp. 4-10; 문경연 외,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행위자 정책 분석,” 『동서연구』 제26권 제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pp. 87-117; David Black and Ben O’Brigh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Ambiguities of “Part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Vol. 71, No. 1 (2016), pp. 144-166.

연구에서는 민간기업과 기업이 설립한 자선재단만을 민간부문으로 한정하였고,¹⁰⁾ 민간부문 참여(PSE: Private Sector Engagement)에 관한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을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다.¹¹⁾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존 논의는 대체로 서로 다른 민간행위자를 ‘민간부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는 1993년까지 모든 비정부·비영리 조직에 대해 NGO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후 ‘시민사회조직(CSOs)’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¹²⁾ UNDP(2001)의 정의에 따르면, CSOs는 이윤을 창출하거나 통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CSOs는 시민사회 내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식 및 비공식적 조직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NGO, 지역사회 기반 조직(CBO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원주민 조직(IPOs: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학계, 언론인 협회, 종교 기반 조직, 노동조합, 무역 협회 등을 포함한다. 반면, 자선활동을 하는 재단은 ‘재단’, ‘자선재단’, ‘민간재단’, ‘민간자선재단’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재단을 ‘민간자선재단’이라고 통칭한다. 보통, 민간자선재단은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민간부문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한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라고 정의된다.¹³⁾

이를 종합하자면, NGO는 CSOs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민간자선재단은 CSOs로 간주되지 않는다. UN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10) José Di Bella, Alicia Grant, Shannon Kindornay, and Stephanie Tissot, *Mapping Private Sector Engagemen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e North-South Institute, 2013), pp. 57-60.

11) 김은주·이도석,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6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22), pp. 1-22.; 이지선 외,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참여(PSE)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 기업의 참여 동기와 사업 경험에 관한 인센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pp. 21-37.

12) UNDP, *UNDP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 A Policy of Engagement* (New York: UNDP, 2001), p. 2.

13) Marten and Witte (2008); Adelman (2009), pp. 23-33.

Monetary Fund) 또한 민간자선재단과 CSOs를 구분하고 있으며, OECD 역시 민간자선재단과 CSOs를 명확히 다른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¹⁴⁾ 이처럼 국제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자선재단을 NGO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 또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⁵⁾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국경을 넘어서는 금융적 흐름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 대부분은 공여국의 공적 자금인 ODA를 중심으로, 공여국이 왜, 어떤 수원국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ODA를 공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공여국의 원조 배분은 공여국의 이익(DI: donors' interest) 혹은 수원국의 필요(RN: recipients' needs),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상정하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이나 국제적 규범에 따라서 원조를 배분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14) OECD,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Dimension* (Paris: OECD Publishing, 2018), p. 30.

15) Jeremy Youde, "The Role of Philanthropy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5, No. 1 (2019), pp. 39-56.

16) Robert McKinlay and Richard Little, "A Foreign Policy Model of U.S. Bilateral Aid Allocation," *World Politics*, Vol. 30, No. 1 (1977), pp. 58-86; Richard Little and Robert McKinlay, "Linkage-responsiveness and the Modern State: An Alternative View of Interdepende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 No. 3 (1978), pp. 209-225; Robert McKinlay, "The German Aid Relationship: A Test of the Recipient Need and the Donor Interest Models of Distribution of German Bilateral Aid 1961-1970,"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6, No. 3 (1978), pp. 235-257; Robert McKinlay and Richard Little, "The US Aid Relationship: A Test of the Recipient Need and the Donor Interest Models," *Political Studies*, Vol. 27, No. 2 (1979), pp. 236-250; Alesina and Dollar (2000), pp. 33-63; Eric Neumayer, "The Determinants of Aid Allocation by Regional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nd United Nations Agenc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 1 (2003a), pp. 101-122; Neumayer (Routledge, 2003b); Jean-Claude Berthélemy and Ariane Tichit,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a Three Dimension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Vol. 13, No. 3 (2004), pp. 253-274; Berthélemy (2006), pp. 179-194; Günther Fink and Silvia Redaelli,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Emergency Aid: Humanitarian Need Only?" *World Development*, Vol. 39, No. 5 (2011), pp. 741-757; Paul A. Raschky and Manijeh Schwindt, "On the Channel and Type of Aid: The Case of 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8, No. 1 (2012), pp. 119-131; Vincent Arel-Bundock, James Atkinson, and Rachel A. Potter, "The Limits of Foreign Aid Diplomacy: How Bureaucratic Design Shapes Aid Distribu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9, No. 3 (2015), pp. 544-556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원조결정요인을 검증하는 다수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음

민간행위자인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을 설명하기에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여하는 CSOs의 원조 배분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 역시 증가하였으며,¹⁷⁾ 특히 CSOs의 활동에 실증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¹⁸⁾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수원국의 필요(RN), 즉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CSOs의 자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⁹⁾ 또한, CSOs와 공여국, 즉 CSOs의 국적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CSOs의 원조와 공여국의 ODA 간 상관관계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수원국에 대한 CSOs의 원조 배분은 해당 수원국에 대한 CSOs 국적국의 ODA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²⁰⁾ 마지막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CSOs의 생존 전략이 원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 정부, 민간자선재단 등 외부 행위자로부터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CSOs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가 기대되는 수원국에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이다.²¹⁾

17) Axel Dreher, Florian Mölders, and Peter Nunnenkamp, "Are NGOs the Better Donors? A Case Study of Aid Allocation by Swiss NGOs: A Panel Tobit Analysi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60 (2007), pp. 829-867.

18) 한바란, "개발NGO의 차별성에 대한 실증문헌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16), pp. 149-169.

19) Peter Nunnenkamp, Janina Weingarth, and Johannes Weisser, "Is NGO Aid Not So Different After All? Comparing the Allocation of Swiss Aid by Private and Official Dono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5, No. 4 (2009), pp. 422-438; Peter Nunnenkamp and Hannes Öhler, "Aid Allocation through Various Official and Private Channels: Need, Merit, and Self-Interest as Motives of German Donors," *World Development*, Vol. 39, No. 3 (2011), pp. 308-323; Jungsook Kim and Heon Joo Jung, "An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id Allocation by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32 (2021), pp. 151-164.

20) Dirk-Jan Koch, *Blind Spots on the Map of Aid Allocations: Concentration and Complementarity of International NGO Aid* (Helsinki: UNU-WIDER, 2007), pp. 26-57.; Dirk-Jan Koch, Axel Dreher, Peter Nunnenkamp, and Rainer Thiele, "Keeping a Low Profile: Wha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Ai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ld Development*, Vol. 37, No. 5 (2009), pp. 902-918; Nunnenkamp et al. (2009), pp. 422-438.; Nunnenkamp and Öhler (2011), pp. 308-323; Kim and Jung (2021), pp. 151-164.

21) Kim and Jung (2021), pp. 151-164.

이러한 CSOs의 자원 배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기존 국가 중심(state-centric) 분석을 뛰어넘어 민간부문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선재단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원조 배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업가적 자선 활동(entrepreneurial philanthropy)에 주목하여 평판 제고, 새로운 기회 창출 등 이기적 동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²²⁾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양한 유형의 민간자선재단이 지닌 복합적인 동기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UNDP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선재단은 설립자의 비전, 경영진과 운영위원회의 성향, 기부자 및 그 가족의 영향력, 대외적 평판과 위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복잡하고 심층적인 동인을 통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재단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여론, 해외 사무소의 입지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²³⁾

이와 같이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는 재단에서 공개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재단의 규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큰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기존 연구는 양적 연구²⁴⁾보다는 질적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²⁵⁾ 특히 다수의 사례연구는 가장

22) Tomasz Mickiewicz, Arnis Sauka, and Ute Stephan, "On the Compatibility of Benevolence and Self-interest: Philanthrop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34, No. 3 (2014), pp. 303-328; Zoltan J. Acs and Leo P. Dana, "Contrasting Two Models on Wealth Redistribu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6, No. 2 (2001), pp. 63-74; Sameeksha Desai and Zoltan J. Acs, "Democratic Capitalism and Philanthropy in a Global Economy," in Zoltan J. Acs and Roger R. Stough (eds.), *Public Policy in an Entrepreneurial Economy* (New York: Springer, 2008), pp. 281-293; Eleanor Shaw, Jillian Gordon, Charles Harvey, and Mairi Maclean, "Exploring Contemporary Entrepreneurial Philanthropy,"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31, No. 5 (2013), pp. 580-599.

23) UNDP, *Philanthropy as an Emerging Contributor to Development Cooperation* (New York: UNDP, 2024), pp. 19-20.

24) Carrie R. Oelberger and Simon Y. Shachter, "National Sovereignty and Transnational Philanthropy: The Impact of Countries' Foreign Aid Restrictions on US Foundation Funding," *Voluntas*, Vol. 32, No. 2 (2021), pp. 204-219.

25) Adelman (2009), pp. 23-33; Adam M. Fejerskov, "From Unconventional to Ordinary?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and the Homogenizing Effects of International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자료가 풍부한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을 대상으로 한다.²⁶⁾ 또한, 민간자선재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가 좋다는 연구²⁷⁾나 국제관계 분석에 자선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²⁸⁾ 등은 규범적 연구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질적 접근에 의존해 온 한계를 보완하고, 획득 가능한 최대한의 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Ⅲ. 국제개발협력과 민간자선재단: 역사와 현황

19세기 앤드류 카네기와 존 록펠러 같은 최초의 자선 자본가(philanthro-capitalists)가 등장하면서 ‘자선’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의 의미로 확장되었다.²⁹⁾ 이들은 교육, 도서관 설립, 과학 연구 등 공익 증진을 목표로 사재(私財)를 사회에 환원하였으며, 이후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이 결합된 다양한 기부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세기 초반 카네기 재단(1911년), 록펠러 재단(1913년), 포드 재단(1936년)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들 재단은 초기에 대부분 국내 사업에 집중했으나, 점차 국제적 문제 해결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³⁰⁾ 다만 해외 자선사업의 규모는 국내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21세기에 들어 민간자선재단들은 세계화와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 활동 범위도 크게 확장되었

Development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27, No. 7 (2015), pp. 1098-1112; Youde (2019), pp. 39-56; John J. Chung, “Rethinking the Role of NGOs in an Era of Extreme Wealth Inequality: The Example of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Vol. 26, No. 1 (2021), pp. 1-39.

26) Chung (2021), pp. 1-39; Fejerskov (2015), pp. 1098-1112.

27) Adelman (2009), pp. 23-33.

28) Youde (2019), pp. 39-56.

29) Marty Sulek, “On the Modern Meaning of Philanthrop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9, No. 2 (2010), pp. 193-212; Youde (2019), pp. 39-56.

30) Youde (2019), pp. 39-56.

다. 특히,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MGF)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말라리아와 소아마비 등 질병 퇴치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21세기 민간자선재단들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자원과 전략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 민간자선재단들이 전통적인 재단의 역할을 넘어, ‘개발을 위한 자선 활동’을 수행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듯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자선재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을 분석할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³²⁾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인 OECD DAC의 원조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에 보고된 민간자선재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³³⁾ 2009년부터 2022년까지 OECD CRS에 보고한 민간자선재단의 수는 총 45개로, 이들의 본사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등 총 10개국에 분포해 있다. 동 기간 OECD DAC에 보고한 전체 재단 중 미국에 본사가 있는 재단은 총 23개(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스위스와 영국이 각각 5개(11.1%), 네덜란드가 4개(8.9%),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2개(4.4%),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이 각각 1개(2.2%) 순이다. 같은 기간 민간자선재단 지원액의 총액은 약 4,228억 8,290만 달러로, 같은 시기 OECD DAC 공여국의 ODA 집행액인 약 2조 1,360억 1천만 달러의 약 20%에 해당한다. <그림 1>에서 보듯, 2016년 이전까지 민간자선재단의 집행액은 OECD DAC 공여국 원조의 8.8%에서 16.5% 수준으로 20% 미만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민간자선재단의 집행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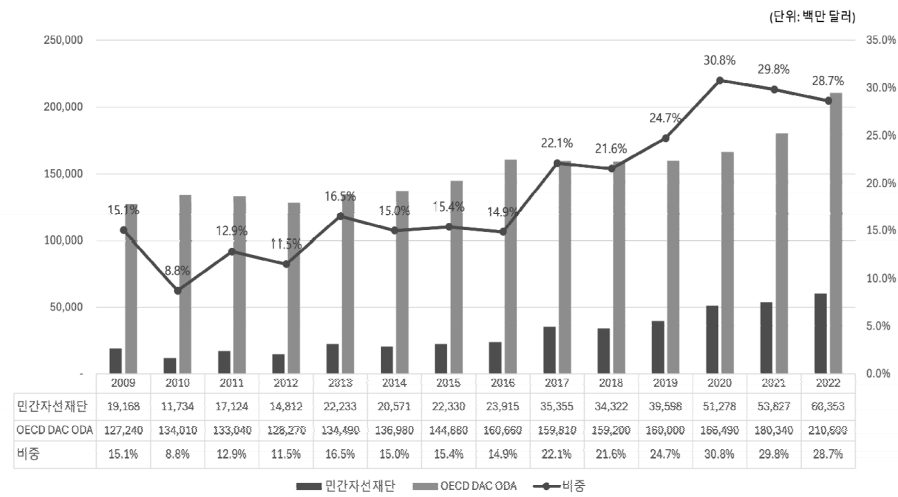
31) Marten and Witte (2008), pp. 14-22.

32) Marten and Witte (2008), pp. 14-22; OECD,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Dimension* (Paris: OECD Publishing, 2018), p. 119.

33) 물론 동 데이터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자선재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2009년을 시점으로 자료가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하지만, 주요 민간자선재단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수준의 정보 및 수원국별 자원 배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ODA와 동일한 통계 기준과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최선의 자료임을 고려하였다.

OECD DAC 공여국 원조 집행액의 20%를 꾸준히 초과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민간자선재단 지원 규모와 OECD DAC ODA 규모 비교(2009-2022)



출처: OECD CRS 바탕으로 저자 작성³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자선재단의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BMGF가 민간자선재단 전체 지원액의 66.1%에 해당하는 2,795억 2,9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최대 공여행위자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마스터카드 재단이 650억 7,800만 달러의 지원액(약 15.4%)을 집행하였다. 이를 통해 상위 2개 민간자선재단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자선재단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대다수의 보고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³⁵⁾

34) OECD, "DAC1: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taset]," May 2,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FinalDMZ&df\[id\]=DSD_DAC1%40DF_DAC1&df\[ag\]=OECD.DCD.FSD&av=true&pd=%2C&dq=DAC...1140%2B1160..Q.&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FinalDMZ&df[id]=DSD_DAC1%40DF_DAC1&df[ag]=OECD.DCD.FSD&av=true&pd=%2C&dq=DAC...1140%2B1160..Q.&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OECD,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Dataset]," April 12,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cdDisseminateFinalDMZ&df\[id\]=DSD_PPF%40DF_PPF&df\[ag\]=OECD.DCD.FSD&dq=9PRIV0..1000..T.D.Q..T..&lo=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cdDisseminateFinalDMZ&df[id]=DSD_PPF%40DF_PPF&df[ag]=OECD.DCD.FSD&dq=9PRIV0..1000..T.D.Q..T..&lo=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35) OECD (2018), pp. 36-37; OECD (2021), pp. 33-34.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을 대륙(지역)별, 수원국 유형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륙별 자원 배분의 경우, 45% 이상의 자원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배분되었다. 둘째, 수원국 유형의 경우, 최빈개도국보다는 하위중소득국가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었다.³⁶⁾ 셋째, CRS 목적코드에 따른 배분 분야의 경우,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자원이 배분되었다.

종합하자면, 민간자선재단은 고소득 국가가 많이 분포하는 대륙보다는 저소득 국가가 집중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OECD CRS에 보고된 민간자선단체의 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아시아에 대한 자원 배분이 정체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민간자선재단들이 다른 대륙보다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IV.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자선재단은 전 세계 빈곤 퇴치와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행위자이다. 동시에 이들은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 핵심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생존과 사업 성과를 추구하는 행위자이다. 나아가, 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행위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하며, 이들 간 파트너십은 목표 달성의 중

36) OECD DAC은 3년마다 소득 기준을 검토해 ODA 수원 자격이 있는 국가와 지역을 선정한 수원국 목록을 갱신한다. 이러한 국가 및 지역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모든 저소득(LICs: low income countries) 및 중간 소득 국가(LMICs: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s: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와 유엔에서 정의한 모든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으로 구성되며, 이전 G8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및 유럽연합 가입이 확정된 국가는 제외된다. OECD, “ODA Recipients: Countries, Territo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https://www.oecd.org/en/topic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html#list-updates>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참고.

요한 도구이자 그 자체로서 중요한 목표이다. 이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자선재단은 전 세계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글로벌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민간자선재단 고유의 인도주의적 가치와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 민간자선재단은 '자선'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범위를 이웃과 지역공동체에서 국경을 넘어 개발도상국까지 확장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실현하는 사명을 갖는다. 이러한 사명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빈곤, 보건, 교육, 인권,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며, 특히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선재단의 사명과 역할은 SDGs 17개 목표와 연계되어 수원국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단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문서에 SDGs와 연계된 목표를 명시하거나, 성과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 또한 민간자선재단의 개발도상국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SDGs 달성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³⁷⁾

이러한 민간자선재단의 사명과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필요 기반의 자원 배분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국제규범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간자선재단은 '국제규범 준수자'로서 수원국의 필요(RN)가 두드러진 곳에 원조를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은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수원국에 원조를 배분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를 이러한 필요를 대표하는 변수로 측정한다.³⁸⁾

가설 1. 민간자선재단은 개발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수원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37)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2019), pp. 8-23; United Nations,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Advanced, Unedited Vers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pp. 105-106.

38) McKinlay (1978), pp. 235-257; Neumayer (2003a), pp. 101-122; Berthélemy (2006), pp. 179-194.

가설 1-1. 재단은 영아사망률이 더 높은 수원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가설 1-2. 재단은 1인당 GDP가 더 낮은 수원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둘째, 하나의 조직으로서 민간자선재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조직을 유지,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민간자선재단은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³⁹⁾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는 '핵심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핵심 자원의 분포에 따라 외부 환경의 불확실도가 달라진다.⁴⁰⁾ 민간자선재단의 핵심 자원은 특정 기금뿐 아니라 운영 자산 등을 포함한 재단의 자산, 즉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자선재단은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자금은 활동 성과가 반영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입된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로 조달되며, 재단은 장기적인 기부 유치를 위해 기부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단은 원조 제공 대상 후보를 선정할 때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개발 CSOs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위험 회피 전략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선호한다는 점을 밝혔다.⁴¹⁾ 민간자선재단 또한 자원 배분 시, 핵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원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자선재단은 자신이 투입한 자원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수원국을 선호할 것이다. 즉, 민간자선재단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을 기부자들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

39) Jeffrey Pfeffer,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Theory* (Pitman, 1982).

40) Pfeffer (1982); Werner Nienhüser, "Resource Dependence Theory: How Well Does It Explain Behavior of Organizations?" *Management Review*, Vol. 19, No. 1/2 (2008), pp. 9-32.

41) Kim and Jung (2021), pp. 151-164.

는 수원국을 선택할 것이다. 건전한 제도와 정책이 빈곤 감소에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⁴²⁾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환경은 자원의 낭비와 부패의 위험을 줄이며, 기부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잘 구축된 국가일수록 민간자선재단의 자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자선재단의 경우, 수원국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한다. 민간자선재단이 자금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원국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단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⁴³⁾ 이에 지역 민간행위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수원국에서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공공정책 감시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활발해 자원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자선재단은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수원국일수록 원조 배분의 효과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조를 제공할 유인이 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을 성과 창출이 가능한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직 성과 추구자’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민간자선재단은 더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수원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가설 2-1. 재단은 거버넌스가 더 좋은 수원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가설 2-2. 재단은 시민사회 참여가 더 활발한 수원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42) Neumayer (2003b); Collier and Dollar (2002), pp. 1475-1500; Bourguignon and Sundberg (2007), pp. 316-321.

43) Helmut K. Anheier and Stefan Teopler, *Private Funds, Public Purpose: Philanthropic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1999).

셋째, 파트너십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규범인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하기에 민간자선재단의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수원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많은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원조 규범이다.⁴⁴⁾ 이러한 점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 각각 목표-8과 목표-17에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과 기존 행위자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민간자선재단은 기존 행위자들이 자원을 투입한 국가 또는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개발재원이 투입된 수원국에 추가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민간자선재단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자선재단에게 중요한 유인을 제공한다. 먼저, 국제기구나 공여국의 원조가 많이 투입된 국가에는 이미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프라와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선재단의 자원이 투입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⁴⁵⁾ 즉, ODA가 유입된 수원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민간자선재단의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 배분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일한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생성되는 다른 공여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는 후속 사업을 발굴하거나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⁴⁶⁾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은 민간자선재단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가시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민간자선재단의 국적국이 지원하는 CSOs가 많이 활동하는 수원국의 경우, 해당 CSOs와의 파트너십이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장기적·전략적 관점

44) UNESCAP, *Partn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for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AP, 2018).

45) Nunnenkamp and Öhler (2011), pp. 308-323.

46) Kim and Jung (2021), pp. 151-164.

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조 배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성자’로서 민간자선재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 3. 민간자선재단은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수원국에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가설 3-1. 재단은 국제기구의 ODA가 더 많이 집행된 수원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할 것이다.

가설 3-2. 재단은 국적국의 ODA가 더 많이 집행된 수원국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이다.

가설 3-3. 재단은 국적국의 CSOs를 통한 원조액이 더 많이 집행된 수원국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변수의 선정과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는 40개의 민간자선재단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의 국가들에 약정한 원조 규모를 담은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종속변수는 민간자선재단이 각 수원국에 약정한 원조액(commitment)이다.⁴⁷⁾ 독립변수는 ‘국제규범 준수자,’ ‘조직성과 추구자,’ ‘파트너십 형성자’로서의 민간자선재단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국제규범 행위자’로서 민간자선재단은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하여 자원을 배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수원국의 필요는 교육, 보건, 위생, 인프라 등 분야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이다.⁴⁸⁾ 본 연구도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를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하는 지표로 삼고, 각각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47) 수원국에 대해 실제로 집행된 금액(disbursement)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수원국이 약정을 요청하는지 여부, 공여자의 정치적 의도 및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약정액은 공여행위자가 전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여자의 원조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더욱 적절한 변수라는 점에서 약정액을 활용한다. Neumayer (2003b); Matthew Odedokun, “Analysis of Deviations and Delays in Aid Disbursements,” *Wider Discussion Paper*(2003), p. 1.

48) Ira N. Gang and James A. Lehman, “New Directions or Not: USAID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18, No. 5 (1990), pp. 723-732; Kim and Jung (2021), pp. 151-164.

활용하였다.

둘째, ‘조직이익추구 행위자’로서 민간자선재단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굿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여’가 있다. ‘굿 거버넌스’를 반영하는 지표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⁴⁹⁾의 6가지 세부 지표 중 본 연구 가설과 가장 밀접한 ‘정치적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정부 규제 질’, ‘부패 통제’ 지표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시민사회 참여’는 ‘민주주의의 다양성(V-Dem)’ 프로젝트가 발표하는 ‘시민사회 참여지수(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dex)’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형성자’로서의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은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반응한다. 이는 국제기구, 재단의 국적국, CSOs에 대한 재단 국적국의 원조액을 지표로 측정하였고, OECD CR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특히, 국적국의 CSOs가 수원국에 집행하는 실제 원조액에 대한 가용한 데이터는 부재하기에 본 연구는 ‘Aid for CSOs’⁵⁰⁾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추정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의 모든 독립변수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에 영향을 미친 시점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와 1년의 시차를 두고 분석하였다.

49) WGI의 세부 지표로는 시민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정부 규제 질(Regulatory Quality), 법치(Rule of Law),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가 포함된다.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 Documentation”,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orldwide-governance-indicators/documentation>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참고.

50) 공여국이 CSOs를 통해 ODA를 집행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CSOs에 대한 원조(Aid to CSOs)’로 CSOs가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CSOs를 통한 원조(Aid through CSOs)’로 공여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CSOs 및 기타 민간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자금이다. 이 둘을 통합해 ‘CSOs를 위한 원조(Aid for CSOs)’라고 한다. OECD, *Aid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Paris, OECD Publishing, 2018), p. 2 참고.

<표 1> 변수 및 지표

구분		지표		출처
종속변수		수원국별 민간자선재단의 약정액(백만 달러)		OECD CRS Data
독립변수	국제규범 준수자	수원국의 영아사망률		World Bank
		수원국의 1인당 GDP		World Bank
	조직성과 추구자	수원국의 굿 거버넌스 지표 (-2.5~2.5)	정치적 안정성	World Governance Index
			부패 통제	
			규제의 질	
	수원국의 시민사회 참여지수		The Varieties of Democracy(V-Dem)	
	파트너십 형성자	국제기구의 ODA 집행액(백만 달러)		OECD CRS Data
국적국의 ODA 집행액(백만 달러)		OECD CRS Data		
국적국의 Aid for CSOs 집행액(백만 달러)		OECD CRS Data		
통제변수		수원국의 인구(천 명)		World Bank
		민간자선재단의 연혁		각 민간자선재단 홈페이지
		국적국의 수원국에 대한 수출액(천 달러)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통제변수로는 수원국의 인구, 민간자선재단의 연혁, 그리고 재단 국적국의 수원국에 대한 수출액을 설정했다. 먼저, 인구가 많을수록 개발 자원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조 배분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¹⁾ 한편, 민간자선재단 연혁의 경우, 오래된 재단은 신생 재단에 비해 누적된 지원 경험과 자금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에서 공여국 및 CSOs의 국적국과 수원국 간 무역량이 주요 변수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민간자선재단이 위치한 국적국의 수원국에 대한

51) Koch et al. (2009), pp. 902-918; Axel Dreher, Peter Nunnenkamp, Hannes Öhler, and Johannes Weisser, "Financial Dependence and Aid Allocation by Swiss NGOs: A Panel Tobit Analysi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60, No. 4 (2012), pp. 829-867; Michelle Keck,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US-funded NGO Aid versus US Official Development Aid,"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26 (2015), pp. 1314-1336; Kim and Jung (2021), pp. 151-164.

수출량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⁵²⁾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민간자선재단의 원조배분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첫째 민간자선재단은 어떤 수원국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후, 그 수원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⁵³⁾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는 원조 대상국 결정과 원조 규모 결정이라는 2단계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⁵⁴⁾ 즉, 특정 국가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 과정을 거쳐 수원국 목록이 확정되며, 다음 단계에서 각 수원국에 배분될 원조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민간자선재단 또한 기존의 전통적 원조 행위자인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OECD DAC이 발표하는 140여 개의 모든 수원국에 자원을 배분하지 않으며, 각기 집중하는 목표, 분야 및 전략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수원국을 선정한 후, 원조 규모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1단계 수원국 선정과 관련해서는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의사결정 2단계 자원 배분 규모 결정에 대해서는 토빗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⁵⁵⁾ 먼저, 첫 번째 모델에서는 1단계 수원국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종속변수는 민간자선재단의 약정액이 0을 초과한 경우 1, 약정액이 0으로 표시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2단계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요

52) Peter Nunnenkamp and Rainer Thiele, "Targeting Aid to the Needy and Deserving: Nothing but Promises?" *The World Economy*, Vol. 29, No. 9 (2006), pp. 1177-1200; Metzger et al. (2010), pp. 228-243; Kim and Jung (2021), pp. 151-164; 김정수·원숙연, "OECD 개발원조 위원회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결정요인: 젠더마커2 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국제개발협력 연구』 제15권 제4호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pp. 1-22.

53) Leonard Dudley and Claude Montmarquette, "A Model of the Supply of Bilateral Foreign Ai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No. 1 (1976), pp. 132-142.

54) David. L. Cingranelli and Thomas. E. Pasquarello, "Human Rights Practices and the Distribution of U.S. Foreign Aid to Latin Americ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9, No. 3 (1985), pp. 539-563; Neumayer (2003a), pp. 101-122; Berthélemy and Tichit (2004), pp. 253-274; Metzger et al. (2010), pp. 228-243; Kim and Jung (2021), pp. 151-164; 김정수·원숙연 (2023), pp. 1-22.

55) Kim and Jung (2021), pp. 151-164.

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은 1단계에서 선정된 수원국만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를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약정액으로 설정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민간자선재단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에 한정하여 실제 원조 배분을 분석함으로써, 각 독립변수가 원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에서는 OECD DAC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원국으로 선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규모를 분석한다. 민간자선재단은 다른 공여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수원국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전체 34,160개의 데이터 중 약정액이 '0'을 초과한 사례는 3,193개로, 전체의 10% 미만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규모의 종속변수가 0으로 편향되고 데이터 분포가 하단에서 검열된 상태에서 단순회귀분석을 적용하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에 토빗 모형을 활용한다.⁵⁶⁾ 그리고,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측정되지 않은 모든 시간 불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 효과(fixed effect)를 적용한다.⁵⁷⁾

56) Husam-Aldin N. Al-Malkawi, "Determinants of Corporate Dividend Policy in Jordan: An Application of the Tobit Model," *Journal of Economic & Administrative Sciences*, Vol. 23, No. 2 (2007), pp. 44-70; Kim and Jung (2021), pp. 151-164.

57) Metzger et al. (2010), pp. 228-243.; Kim and Jung (2021), pp. 151-164; Fuchs and Öhler (2020), pp. 671-705.

V. 실증분석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약정액을 포함하여 총 34,160개의 관측값을 갖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초통계는 아래 <표 2>와 같다. 이 중 약정액, 1인당 GDP, 국제기구 ODA, 국적국 ODA, Aid for CSOs, 수원국 인구, 국적국의 수출량은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커 결과 해석에 중대한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해 측정했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회귀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수가 모두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기초통계 요약

구분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민간자선재단의 약정액(백만 달러)	34,160	2.869	42.530	0	2,304.256
독립변수	국제규범 준수자					
	영아사망률(%)	32,680	28.251	19.006	2	89.9
	1인당 GDP (2015 불변 달러)	31,960	4,208.239	3,538.136	263.361	18,357.68
	조직성과 추구자					
	굿 거버넌스 ^{a)}	32,928	2.009	0.669	0.374	3.876
	시민사회 참여지수	28,880	0.618	0.229	0.025	0.951
	파트너십 형성자					
통제변수	국제기구 ODA (백만 달러)	34,160	394.657	556.088	0	3,701.19
	국적국 ODA (백만 달러)	34,160	98.774	215.139	0	2,264.973
	AID for CSOs (백만 달러)	34,160	1.010	4.074	0	90.890
	인구 (천 명)	33,739	2.80e+08	8.96e+08	10,828	6.70e+09
	연혁	34,160	41.451	27.303	4	113
	수출액 (천 달러)	33,286	3,207,750	1.97e+07	0.010	2.76e+08

^{a)} '굿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모두 -2.5에서 2.5 범위 내 값을 가지지만, '정치적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지표의 경우 WGI 원본 데이터에서 -2.5보다 낮은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당 수치를 -2.5로 조정하고, 모든 수치에 2.5를 더해 양수 값으로 변환한 후 평균을 산출함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모델을 구축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민간자선재단의 수원국 선정 요인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를 배분받은 수원국만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토빗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원조 배분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모든 모델에 민간자선재단과 연도의 고정 효과를 적용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실증 분석 결과

			모델1 (로짓회귀)	모델2 (OLS)	모델3 (토빗회귀)
			1단계: 수원국 선정	2단계: 자원 배분 규모	
독립 변수	국제규범 준수자	영아사망률	0.008*** (5.11)	0.010*** (6.53)	0.003*** (10.79)
		1인당 GDP (ln)	-0.488*** (-9.75)	-0.015 (-0.29)	-0.019** (-2.20)
	조직성과 추구자	굿 거버넌스	0.750*** (12.64)	0.301*** (4.93)	0.117*** (12.35)
		시민사회 참여지수	0.795*** (5.93)	0.049 (0.36)	0.026 (1.19)
	파트너십 형성자	국제기구 ODA (ln)	0.118*** (4.37)	0.172*** (5.93)	0.046*** (9.49)
		국적국 ODA (ln)	0.284*** (13.97)	0.129*** (6.12)	0.036*** (10.33)
		Aid for CSOs (ln)	0.177*** (5.53)	0.088*** (2.84)	0.054*** (8.25)
	통제변수	인구 (ln)	0.035*** (4.07)	0.030*** (3.43)	0.009*** (5.91)
		연혁	-0.004 (-0.36)	0.011 (1.12)	0.003 (1.12)
수출액 (ln)		0.348*** (23.60)	0.115*** (7.77)	0.038*** (16.21)	
민간자선재단-연도 고정 효과(FE)			YES	YES	YES
N			27,163	3,000	27,163
R ²			-	0.4189	-
LR chi2			5184.89	-	6808.63
Pseudo R2			0.2747	-	0.1130
F			-	39.32	-
Log likelihood			-6845.159	-	-26710.576

*p<0.1, **p<0.05, ***p<0.01

1단계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자선재단의 수원국 선정 요인에 대한 로짓회귀모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원국의 필요’와 관련된 두 변수 모두 민간자선재단의 수원국 선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발도상국의 영아사망률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1인당 GDP가 낮을수록 민간자선재단이 수원국으로 선정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자선재단이 수원국의 필요를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한다는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민간자선재단의 자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조직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굿 거버넌스와 높은 시민사회 참여지수—을 갖춘 개발도상국일수록 민간자선재단의 수원국 선정 단계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가설 <2-1>과 <2-2>를 지지한다. 마지막,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민간자선재단이 국제기구, 국적국, 그리고 국적국의 지원을 받는 CSOs 등의 활동이 활발한 개발도상국을 수원국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가설 <3-1>, <3-2>, <3-3>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1단계인 수원국을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자선재단은 수원국의 필요, 조직이익, 파트너십 모두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은 민간자선재단의 원조를 제공받은 수원국만을 대상으로 하여 배분된 원조 규모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모델과 대동소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수원국 필요’ 측면에서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1인당 GDP의 경우, 예상한 방향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조직성과 추구자’로서 민간자선재단은 양질의 거버넌스를 갖춘 수원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였다. 시민사회 참여지수가 높은 수원국에 대해서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측정하는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원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기구 및 국적국의 ODA, 국적국의 CSOs에 대한 원조는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리하자면, 2단계 자원 배분 규모 결정 단계에서는 가설 <1-2>와 가설 <2-2>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민간자선재단이 원조 규모를 결정할 때, 수원국의 필요나 조직적 이익에 유리한 환경보다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창출되는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국제기구와 국제국의 ODA가 이미 투입된 국가들에서는 기존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민간자선재단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원 배분 단계에서 CSOs의 활발한 활동을 의미하는 ‘Aid for CSOs’ 변수와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규모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자원이 활용될 때 현지 CSOs의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CSOs는 현지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며, 신뢰와 친밀함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맞춤형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현지 사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행 도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민간자선재단은 CSOs의 네트워크와 탄력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개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1단계 수원국 선정과 2단계 선정된 수원국 대상 원조 규모 분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은 비수원국과 자원이 배분된 수원국을 모두 포함하여, 원조 배분 여부와 배분 규모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토빗 모형에서 ‘수원국의 필요’와 관련된 가설 <1-1>과 <1-2> 모두 지지되었다. 즉, 영아사망률이 높고, 1인당 GDP가 낮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대상이 될 가능성과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과 관련하여, 굿 거버넌스는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여부 및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시민사회 참여지수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

지막으로,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즉, 국제기구의 ODA, 국적국의 ODA, 그리고 Aid for CSOs는 모두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여부 및 규모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CSOs와 민간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 행위자가 국적국의 ODA 흐름을 따르는 경향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⁵⁹⁾ 본 연구는 민간자선재단 역시 이러한 유사한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민간자선재단과 국적국의 긴밀한 관계는 민간자선재단의 국내외적인 전략과 연관된다. 국내적으로는, 국적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제한된 자원과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벌금이나 세금 면제, 신용 부여 등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여 외부 경쟁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⁶⁰⁾ 또한, 유리한 규제적 대우를 기대하며 국적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의도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거나 국적국의 원조 방식을 모방하기도 한다.⁶¹⁾ 예를 들어, 자선 활동이 때로는 정부 정책에 맞춘 캠페인 기부나 로비의 대안이 되며,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⁶²⁾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민간자선재단은 장기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국의 원조 방식을 따르거나 성과 가능성이 높은 수원국을 선택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⁶³⁾ 이러한 전략은 민간자선재단이 국적국의 원조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원조 배분을 최적화하

58) 토빗회귀분석 결과로 나타난 계수를 한계효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원국의 필요’와 관련해서 영아사망률이 1단위 증가할 때 수원국에 대한 민간자선재단의 약정액은 0.3% 증가하며, 1인당 GDP가 1% 감소할 때 약정액은 평균적으로 1.9% 증가하였다. 수원국의 안정된 정치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 굿 거버넌스 지표의 경우, 1단위 증가할 때 약정액은 11.7% 증가하였다. ‘파트너십과 유입효과’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 ODA, 국적국의 수원국에 대한 ODA, 국적국의 CSO에 대한 ODA가 1단위 증가할 때 민간자선재단의 약정액은 각각 4.6%, 3.6%,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9) Koch (2007), pp. 26-57; Koch et al. (2009), pp. 902-918; Nunnenkamp et al. (2009), pp. 422-438; Metzger et al. (2010), pp. 228-243; Nunnenkamp and Öhler (2011), pp. 308-323; Kim and Jung (2021), pp. 151-164.

60) Yongqiang Gao, “Philanthropic Disaster Relief Giving as a Response to Institutional Pressure: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4, No. 12 (2011), pp. 1377-1382.

61) Fuchs and Öhler (2020) pp. 671-705.

62) Metzger et al. (2010), pp. 228-243.

63) Kim and Jung (2021), pp. 151-164.

고, 정치적 이익과 위험 회피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굶주린 거버넌스를 갖출수록, 그리고 국제기구·국적국·CSOs의 개발협력 활동이 활발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민간자선재단의 원조가 집중된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이 위치한 지역은 민간자선재단이 수원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원조 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데 휴리스틱(heuristic)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CSOs의 자원배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CSOs는 개발도상국의 지리적 위치를 직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여 원조 배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도 한다.⁶⁴⁾ 민간자선재단 역시 이와 유사하게 개발도상국의 지역에 따라 의사결정을 다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륙별 특성이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추가 분석 결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 결정요인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⁶⁵⁾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수원국의 필요와 관련하여, 영아사망률은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1인당 GDP의 경우, 첫 번째 모델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두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영아사망률이 두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1인당 GDP는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민간자선재단이 조직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수원국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치적 안정성, 부패, 규제 질 등 거버넌스가 잘 갖추어진 국가와 시민사회 참여가 높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민간자선재단의 자원이 더 배분되며, 그 규모 역시 큰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아시아의 경우, 굶주린 거버넌스 지표에 대해 일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64) Ibid.

65)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별 실증 분석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하시오.

으나, 시민사회 참여지수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음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국제기구, 국적국, 그리고 CSOs의 활발한 활동이 원조 배분의 주요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모델 모두에서 국제기구의 원조와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여부 및 규모 결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간자선재단이 자원을 배분할 때, 국적국의 ODA 투입량이 많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러한 방향성이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 분석의 결과는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결정요인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경우, 민간자선재단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거버넌스가 잘 갖추어진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적국의 ODA가 많이 투입된 국가들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삼아, 원조 사업으로 구축된 각종 사회·경제적 인프라 활용과 국적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대체로 민주화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제도적 요인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환경을 고려할 때, 민간자선재단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적국의 ODA 흐름을 따르는 위험 회피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CSOs나 민간기업 등 민간 행위자의 자원 배분 패턴을 연구한 다양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⁶⁶⁾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원국의 필요가 수원국의 정치사회적 환경보다 자원 배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시아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양호하고, 제도적 안정성 또한 높다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즉, 아시아 지역에는 경제적 발전 가능성과 국제적 협력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 조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환경보다는 필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개발 목표를 달성

66) Metzger et al. (2010), pp. 228-243; Fuchs and Öhler (2020), pp. 671-705; Kim and Jung (2021), pp. 151-164.

하려는 접근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첫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에서 국적국 ODA와의 상관관계와 관련해 상반된 부호가 도출되어 해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VI. 결론

민간자선재단은 ‘개발을 위한 자선 활동’을 수행하며 글로벌 의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특히 21세기 민간자선재단은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재단보다 빠르고 큰 규모로 자금을 투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전통적인 자선 행위에 합리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적용한 ‘벤처 자선활동’ 및 ‘자선자본주의’라는 개념과 연계되며, 민간자선재단이 국제개발협력에서 혁신적인 개발 파트너로 주목받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민간자선재단이 어떤 개발도상국을 선정하며,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배분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규범 준수자,’ ‘조직성과 추구자,’ ‘파트너십 형성자’라는 민간자선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설과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1단계 수원국 선정과 관련된 첫 번째 모델의 분석 결과, 가설과 모두 일치하는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개발도상국의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낮을수록,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가 양호하고, 시민사회 참여지수가 높을수록, 국제기구와 국적국의 ODA 및 국적국의 CSOs에 대한 원조가 많을수록, 민간자선재단이 수원국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수원국으로 선정된 이후 2단계인 원조 배분 규모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1인당 GDP와 시민사회 참여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토빗회귀분석을 통해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을 분석한 세 번째 모델에서도 수원국의 시민사회 참여지수만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추가로 수행한 지역별 분석 결과, 민간자선재단의 자원 배분 결정요인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민간자선재단이 수원국을 선정하고 원조 배분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공여행위자의 원조 배분을 일관되게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원국의 필요와 동시에 재단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건들을 고려한다는 점을 볼 때 민간자선재단이 단순히 인도주의적 동기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성과 관리를 목표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OECD CRS에 보고된 수치는 민간자선재단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기존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의 원조 데이터에 비해 품질이 낮을 수 있다. 비교가능하고 획득가능한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CRS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민간자선재단의 보고 자료 등을 통해 교차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자선재단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민간자선재단은 순수한 자선재단부터 기업이 출자한 자선재단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자선재단의 보고서, 웹사이트, 이사회 구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민간자선재단별로 자료 공개의 범위가 달라 시계열 자료를 일관되게 구축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공여 행위자인 민간자선재단의 특성보다는 수원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민간자선재단의 내부 거버넌스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실성 높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된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관계를 추적(process tracing)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난 국제기구, 국적국 ODA와의 관계는 추후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설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분석과 모델에 따라 국적국 ODA 영향력의 방향이 달라진 아시아 국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민간자선재단의 원조 배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국제개

발협력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국가 중심 연구로, 민간자선재단을 포함한 민간행위자의 특성과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시민사회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CSOs와 민간자선재단 간의 협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간행위자들 사이 상호작용이 원조 배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나아가, 본 연구는 SDGs 달성을 위한 자원 마련이 매우 시급한 2025년 현재, 민간자선재단이 국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국제기구, CSO 등 다양한 공여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부록〉

〈표 4〉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별 실증 분석 결과

			아프리카			아시아			
			1단계: 수원국 선정	2단계: 자원 배분 규모	모델3 (토빗회귀)	1단계: 수원국 선정	2단계: 자원 배분 규모	모델3 (토빗회귀)	
			모델1 (로짓회귀)	모델2 (OLS)		모델1 (로짓회귀)	모델2 (OLS)		
독립 변수	국제규범 준수자	영아사망률	0.003 (0.91)	0.002 (0.89)	0.000 (0.10)	0.004 (1.26)	0.016*** (4.34)	0.006*** (8.08)	
		1인당 GDP (ln)	-0.207** (-2.45)	0.321*** (3.64)	0.045*** (2.98)	-0.803*** (-2.14)	-0.178** (-2.08)	-0.089*** (-5.91)	
	조직성과 추구자	국가 거버넌스	0.860*** (9.59)	0.162* (1.85)	0.082*** (5.93)	0.761*** (6.40)	0.092 (0.71)	0.117*** (6.34)	
		시민사회 참여지수	1.327*** (5.94)	0.526** (2.38)	0.181*** (4.95)	0.179 (0.69)	0.120 (0.46)	-0.086** (-1.97)	
	파트너십 형성자	국제기구 ODA (ln)	0.228*** (4.70)	0.367*** (6.04)	0.073*** (7.08)	0.145*** (3.29)	0.159*** (3.33)	0.051*** (6.47)	
		국적국 ODA (ln)	0.434*** (13.62)	0.251*** (7.59)	0.068*** (12.05)	0.136*** (3.07)	0.030 (0.64)	-0.020*** (-2.71)	
		Aid for CSOs (ln)	0.160*** (3.69)	0.015 (0.37)	0.030*** (3.31)	0.321*** (4.90)	0.062 (0.95)	0.053*** (4.12)	
통제변수			인구 (ln)	0.070*** (5.40)	0.019 (1.59)	0.012*** (4.79)	0.001 (0.09)	0.041** (2.34)	0.007*** (2.60)
			연혁	0.024 (1.35)	-0.001 (-0.07)	0.004 (0.87)	-0.010 (-0.53)	0.029* (1.91)	0.006 (1.10)
			수출액 (ln)	0.181*** (5.62)	-0.082** (-2.43)	0.006 (1.14)	0.446*** (15.30)	0.203*** (7.31)	0.071*** (16.20)
민간자선재단-연도 고정 효과(FE)			YES	YES	YES	YES	YES	YES	
N			11,818	1,514	12,121	7,138	831	7,514	
R ²			-	0.5052	-	-	0.5011	-	
LR chi2			3155.16	-	4992.38	1503.45	-	2072.86	
Pseudo R2			0.3487	-	0.2645	0.2928	-	0.1217	
F			-	28.12	-	-	15.03	-	
Log likelihood			-2946.0817	-	-12682.693	-1816.0197	-	-7476.632	

* $p < 0.1$, ** $p < 0.05$, *** $p < 0.01$

[참고문헌]

- 김은주·이도석. “국제개발협력 분야 민간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6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22).
- 김정수·원숙연.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의 성평등 원조 결정요인: 젠더마커 2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5권 제4호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 문경연·이진영·여원영.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행위자 정책 분석.” 『동서연구』 제26권 제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 이은미·이정철.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원조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공여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8).
- 이지선·우창빈·최창용.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참여(PSE)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 기업의 참여 동기와 사업 경험에 관한 인센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5권 제2호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 정현주·송지혜·이상아·남수정. “지역체제 수준에서의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학논총』 제35권 (국제학연구소, 2022).
- 한바란. “개발NGO의 차별성에 대한 실증문헌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16).
- Acs, Zoltan J. and Leo P. Dana. “Contrasting Two Models on Wealth Redistribu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6, No. 2 (2001).
- Adelman, Carol. “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Reinventing Foreign Aid.”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15, No. 2 (2009).
-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5, No. 1 (2000).
- Al-Malkawi, Husam-Aldin N. “Determinants of Corporate Dividend Policy in Jordan: An Application of the Tobit Model.” *Journal of Economic & Administrative Sciences*, Vol. 23, No. 2 (2007).
- Anheier, Helmut K. and Stefan Toepler. *Private Funds, Public Purpose: Philanthropic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1999).
- Arel-Bundock, Vincent, James Atkinson, and Rachel A. Potter. “The Limits of Foreign Aid Diplomacy: How Bureaucratic Design Shapes Aid Distribu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9, No. 3 (2015).
- Berthélemy, Jean-Claude. “Bilateral Donors’ Interest vs. Recipients’ Development Motives in Aid Allocation: Do All Donors Behave the Same?”. *Review*

-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 No. 2 (2006).
- Berthélemy, Jean-Claude and Ariane Tichit.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A Three Dimension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Vol. 13, No. 3 (2004).
- Black, David and Ben O'Brigh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Ambiguities of "Part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Vol. 71, No. 1 (2016).
- Bourguignon, François and Mark Sundberg. "Aid Effectiveness: Opening the Black Box."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7, No. 2 (2007).
- Chung, John J. "Rethinking the Role of NGOs in an Era of Extreme Wealth Inequality: the Example of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Vol. 26, No. 1 (2021).
- Cingranelli, David L. and Thomas E. Pasquarello. "Human Rights Practices and the Distribution of U.S. Foreign Aid to Latin Americ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9, No. 3 (1985).
- Collier, Paul and David Dollar.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6, No. 8 (2002).
- Davies, Penny.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the Context of Aid Effectiveness: Consultative Findings Document Final Report* (Paris: OECD Publishing, 2011).
- Desai, Sameeksha and Zoltan J. Acs. "Democratic Capitalism and Philanthropy in a Global Economy," In Zoltan J. Acs and Roger R. Stough (eds.). *Public Policy in an Entrepreneurial Economy* (New York: Springer, 2008).
- Di Bella, José, Alicia Grant, Shannon Kindornay, and Stephanie Tissot. *Mapping Private Sector Engagemen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e North-South Institute, 2013).
- Dreher, Axel, Florian Mölders, and Peter Nunnenkamp. "Are NGOs the Better Donors? A Case Study of Aid Allocation by Swiss NGOs: A Panel Tobit Analysi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60 (2007).
- Dreher, Axel, Peter Nunnenkamp, Hannes Öhler, and Johannes Weisser. "Financial Dependence and Aid Allocation by Swiss NGOs: a Panel Tobit Analysi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60, No. 4 (2012).
- Dudley, Leonard and Claude Montmarquette. "A Model of the Supply of Bilateral Foreign Ai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No. 1 (1976).
- Fejerskov, Adam M. "From Unconventional to Ordinary? The Bill and Melinda

- Gates Foundation and the Homogenizing Effec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27, No. 7 (2015).
- Fink, Günther and Silvia Redaelli.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Emergency Aid: Humanitarian Need Only?” *World Development*, Vol. 39, No. 5 (2011).
- Fuchs, Andreas and Hannes Öhler. “Does Private Aid Follow the Flag? An Empirical Analysi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he World Economy*, Vol. 44 (2020).
- Gang, Ira N. and James A. Lehman “New Directions or Not: USAID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18, No. 5 (1990).
- Gao, Yongqiang. “Philanthropic Disaster Relief Giving as a Response to Institutional Pressure: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4, No. 12 (2011).
- Ikenberry, John.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1 (2024).
- Keck, Michelle.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US-funded NGO aid versus US Official Development Aid.”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26 (2015).
- Kim, Jungsook and Heon Joo Jung. “An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id Allocation by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32 (2021).
- Koch, Dirk-Jan. *Blind Spots on the Map of Aid Allocations: Concentration and Complementarity of International NGO Aid* (Helsinki: UNU-WIDER, 2007).
- Koch, Dirk-Jan, Axel Dreher, Peter Nunnenkamp, and Rainer Thiele. “Keeping a Low Profile: Wha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Ai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ld Development*, Vol. 37, No. 5 (2009).
- Little, Richard and Robert McKinlay. “Linkage-responsiveness and the Modern State: An Alternative View of Interdepende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 No. 3 (1978).
- Marten, Robert and Jan M. Witte. “Transforming development? The Role of Philanthropic Foundatio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PPi Research Paper Series, No. 10. (2008).

- McKinlay, Robert. "The German Aid Relationship: A Test of the Recipient Need and the Donor Interest Models of Distribution of German Bilateral Aid 1961-1970."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6, No. 3 (1978).
- McKinlay, Robert and Richard Little. "A Foreign Policy Model of U.S. Bilateral Aid Allocation." *World Politics*, Vol. 30, No. 1 (1977).
- _____. "The US Aid Relationship: A Test of the Recipient Need and the Donor Interest Models." *Political Studies*, Vol. 27, No. 2 (1979).
- Metzger, Laura, Peter Nunnenkamp, and Toman O. Mahmoud. "Is Corporate Aid Targeted to Poor and Deserv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Nestle's Aid Allocation." *World Development*, Vol. 38, No. 3 (2010).
- Mickiewicz, Tomasz, Arnis Sauka, and Ute Stephan. "On the Compatibility of Benevolence and Self-interest: Philanthrop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34, No. 3 (2014).
- Neumayer, Eric. "The Determinants of Aid Allocation by Regional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nd United Nations Agenc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1 (2003a).
- _____. *The Pattern of Aid Giving: The Impact of Good Governance and Development Assistance* (Routledge, 2003b).
- Nienhüser, Werner. "Resource Dependence Theory: How Well Does It Explain Behavior of Organizations?" *Management Revue*, Vol. 19, No. 1/2 (2008).
- Nunnenkamp, Peter and Hannes Öhler. "Aid Allocation through Various Official and Private Channels: Need, Merit, and Self-Interest as Motives of German Donors." *World Development*, Vol. 39, No. 3 (2011).
- Nunnenkamp, Peter and Rainer Thiele. "Targeting Aid to the Needy and Deserving: Nothing but Promises?" *The World Economy*, Vol. 29, No. 9 (2006).
- Nunnenkamp, Peter, Janina Weingarth, and Johannes Weisser. "Is NGO Aid Not so Different after All? Comparing the Allocation of Swiss Aid by Private and Official Dono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5 (2009).
- Odedokun, Matthew. "Analysis of Deviations and Delays in Aid Disbursements." Wider discussion paper (2003).
- OECD. *Philanthropic Foundatio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Publishing, 2003).
- _____. *Aid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Paris: OECD Publishing, 2018).

- _____.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Dimension* (Paris: OECD Publishing, 2018).
- _____.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 Second Edition: Data for Action. The Development Dimension* (Paris: OECD Publishing, 2021).
- _____.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Paris: OECD Publishing, 2024)
- Oelberger, Carrie R. and Simon Y. Shachter. “National Sovereignty and Transnational Philanthropy: The Impact of Countries’ Foreign Aid Restrictions on US Foundation Funding.”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32, No. 2 (2021).
- Pfeffer, Jeffrey.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Theory* (Pitman, 1982).
- Raschky, Paul. A. and Manijeh Schwindt. “On the Channel and Type of Aid: The Case of 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8, No. 1 (2012).
-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Philanthropy and the SDGs: Getting Started*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2019).
- Shaw, Eleanor, Jillian Gordon, Charles Harvey, and Mairi Maclean. “Exploring Contemporary Entrepreneurial Philanthropy.”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31, No. 5 (2013).
- Sulek, Marty. “On the Modern Meaning of Philanthrop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9, No. 2 (2010).
- United Nations.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4: Financing for Development at a Crossroads* (New York: United Nations, 2024).
- _____.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Advanced, Unedited Vers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 UNDP. *UNDP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 A Policy of Engagement* (New York: UNDP, 2001).
- _____. *Philanthropy as an Emerging Contributor to Development Cooperation* (New York: UNDP, 2024).
- UNESCAP. *Partn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for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AP, 2018).
- Youde, Jeremy. “The Role of Philanthropy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5, No. 1 (2019).

〈인터넷 자료〉

- OECD. "DAC1: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taset]." May 2,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FinalDMZ&df\[id\]=DSD_DAC1%40DF_DAC1&df\[ag\]=OECD.DCD.FSD&av=true&pd=%2C&dq=DAC...1140%2B1160..Q.&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FinalDMZ&df[id]=DSD_DAC1%40DF_DAC1&df[ag]=OECD.DCD.FSD&av=true&pd=%2C&dq=DAC...1140%2B1160..Q.&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 _____. "ODA recipients: countries, territo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https://www.oecd.org/en/topic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ta-c-list-of-oda-recipients.html#list-updates>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 _____.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Dataset]." April 12, 2024.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cdDisseminateFinalDMZ&df\[id\]=DSD_PPFDF%40DF_PPFDF&df\[ag\]=OECD.DCD.FSD&dq=9PRIV0..1000._T.D.Q._T..&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cdDisseminateFinalDMZ&df[id]=DSD_PPFDF%40DF_PPFDF&df[ag]=OECD.DCD.FSD&dq=9PRIV0..1000._T.D.Q._T..&lom=LASTNPERIODS&lo=5&to[TIME_PERIOD]=false)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 Documentation."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worldwide-governance-indicators/documentation> (검색일: 2024년 9월 27일).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id Allocation by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to the Global South

Yery Heo | M.A. in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Heon Joo Jung | Professor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nd Director of Aerospace Strategy & Technology Institute (ASTI), Yonsei University

As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solve global problems such as poverty, inequality, refugee, climate change, conflicts among others with foreign aid by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lternative aid actors. The aid amount of some foundations exceeds those of some OECD DAC donors, and they are expanding their role through innovative and rapid responses to humanitarian crises. The pattern of aid alloc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varies greatly from foundation to foundation, but there is very little systemat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is variation. This study analys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ection of recipient countries and aid amount by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regards private foundations as ‘complier with international norms,’ ‘maximizer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partnership seeker.’ A two-step analysis is conducted on 40 private foundations that reported to the OECD CRS from 2017 to 2022, and an additional analysis is conducted separately for each region of Africa and Asia. The statistical results reveal that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tend to pursu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hile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norms. Above all, it demonstrates that they take into serious consideration various partnerships when they allocate aid. However,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es show that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id distribution by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differ from region to reg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by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thereby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state-centric research on aid alloc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mplies that various aid-providing actors—donor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SOs—need to partner with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so that the latter can play more active rol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to achieve SDGs by 2030.

Key Words: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ustainable development

투 고 일: 2025.04.06.

심 사 일: 2025.04.28.

게재확정일: 2025.05.27.